

학력과 정보문화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연구☆

An Analysis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Background and Information Culture Index

배 예 선¹ 전 우 천^{2*}
Ye-sun Bae Woo-chun Jun

요 약

현대식정보화사회에서 현대인들은 정보통신기술과 스마트기술 등 다양한 최신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양한 최신기술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일정한 수준의 정보소양과 활용능력을 가져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지도 모두에게 필요하다. 한편 정보 소양과 활용능력을 측정하고 모형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표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문화지수는 정보소양과 활용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정보문화지수는 3가지의 하위지표 즉 활용, 인식 및 규범으로 구성된다. 먼저 활용지표는 일상생활에서 정보화 내용과 기술이 어떻게 보편화되었는가에 관한 것이며, 인식지표는 정보문화공동체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에 관한 것이다. 한편, 규범지표는 바람직한 정보통신윤리 의식에 따라 어떻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줄 아는 가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문화지수의 3가지 하위지표 즉 활용, 인식 및 규범과 학력과의 상관관계를 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조사한 정보문화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였다. 통계분석결과 인식과 규범은 학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반면 활용은 학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활용수준도 높아짐을 보였다. 본 연구는 향후 정보교육과 정보문화 확산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주제어 : 정보문화지수, 학력, 정보통신윤리, 정보소양

ABSTRACT

In the present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every citizen can enjoy benefits of various advanced technologies such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and smart technology. Nowadays everybody has to have some level of information literacy and application ability in order to enjoy benefits from various advanced technologies. In additions, knowledge and practice will abou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thics are also required for all. Currently we need some kind of standards to evaluate and model everybody's information literacy and application capability. In this sense, information culture index has been developed to check information literacy and application capability of every citizen for various aspects of daily life. Information culture index consists of three standards, that is, application, awareness, and norm, respectively. Application standard indicates how information contents and skills are generalized for all. In other words, it is concerned with how every citizen can understand information literacy and use information skills in his or her daily life. Awareness standard is concerned with how well everyone can respect and trust others in the current information culture community. Norm standard is concerned with how everyone can use information communication services according to his or her desirable sen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thic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background and three standards of information culture index, that is, application, awareness, and norm. For this purpose, we use 2-year national survey works for information culture. After thorough statistical analysis, we can conclude that, awareness and norm standards do not show a meaningful correlation with academic background while application standard shows a meaningful correlation with academic background. It means that, the higher academic background one has, the higher application standard one can achieve. We expect that our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can be helpful to spread of information education and information culture in the future.

keyword : Information Culture Index, Academic Backgrou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thics, Information Literacy

1. 서 론

1980년대 PC의 보급과 더불어 정보화 사회가 시작되었고, 1990년대 인터넷기술의 발전과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의 등장으로 인하여 다양한 정보기술과 문화가 일반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다. 특히 월드

¹ Buksung Elementary School, Seoul, 03769, Korea

² Dept. of Computer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 of Education, Seoul, 06639, Korea

* Corresponding author (wochun@snue.ac.kr)

[Received 22 February 2016, Reviewed 24 February 2016(R2 24 March 2016), Accepted 23 May 2013]

☆ 본 논문은 2015년도 한국인터넷정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우수 논문 추천에 따라 확장 및 수정된 논문임

와이드웹의 등장은 컴퓨터 전문가와 전산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에게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였다. 현대인들은 정보통신기술의 기본적인 소양과 활용능력을 통하여 정보화 사회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또한 정보화 사회의 미래를 선도할 정보통신기술교육(ICT교육)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ICT 소양교육과 활용교육 형태로 현재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ICT 소양교육은 정보통신기술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지식, 소프트웨어 운용과 활용방법을 다루며, ICT 활용교육은 기본적인 정보소양을 바탕으로 학습을 비롯하여 정보통신기술을 다양한 일상생활의 문제해결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는 교육이다[1].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고 선도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차원에서의 정보 능력을 측정하고 또한 모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각 개인 차원에서 정보소양과 활용 능력을 증대하여 정보화사회에 올바르게 적응하고 대처하기 위한 올바른 척도로써 ‘정보문화지수’가 등장하게 되었다. 정보문화지수란 일반국민의 정보사회에 있어서 성숙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2008년에 최초로 개발되었다[2]. 이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매년 정보문화실태조사를 통하여 정보문화지수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정보문화지수의 하위 지표는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있으며, 2012년 이후 3개 영역과 6개 하위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 영역으로 각각 활용, 인식 및 규범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력별 정보문화 상관관계 분석을 다룬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4가지 학력(중졸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으로 구분하여 정보문화의 3개 영역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에 있다. 이를 위해 2년 동안의 한국정보화진흥원(<http://www.nia.or.kr>)에서 실시한 정보문화지수 조사연구를 통하여 학력과 정보문화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관련연구로서 정보문화지수의 정의 및 구성, 정보문화지수 관련연구를 소개하며, 3장에서는 학력별 정보문화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를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2.1 정보문화지수의 정의 및 구성

정보문화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습득하여 공유하고 있는 정치, 경제, 역사, 교육 등 사회 일반에 관해 알

고 있는 정보와 사실”을 의미한다[3].

한편, [4]의 연구에서는 가치관, 경제, 교육, 사회, 역사, 정치 및 기타 등 7가지 영역만을 정보문화 교육의 범주로 설정하였다.

정보문화지수는 도구적 정보문화, 가치적 정보문화, 규범적 정보문화 등 3가지 구성요인을 기본으로 활용, 인식 및 규범의 3가지 지표영역으로 구성되며 각각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2,5].

첫째, 도구적 정보문화는 정보사회에서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필수수단으로서, 다른 정보문화요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이다. 이는 ‘활용영역’으로서 표현되며 정보화의 구체적 내용들이 개별국민의 실제 생활 영역에 얼마만큼 정착되고 또한 일상화, 보편화되어 있는 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둘째, 가치적 정보문화는 정보사회에서 인간행위나 사회생활에 의미나 목표를 부여하는 신념체계로서, ‘인식영역’으로 표현된다. 인식영역은 소통과 화합의 정보문화 민주공동체에 필요한 신뢰와 타인 존중 의식을 얼마나 내재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영역이다.

셋째, 규범적 정보문화는 정보 활용을 하는데 요구되는 사회적으로 공인된 규범적 절차와 규칙에 관한 것으로 ‘규범영역’으로 대표된다. 규범영역은 바람직한 정보윤리 및 규범을 바탕으로 얼마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잘 활용하는 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3가지 영역의 하위지표는 다음과 같다.

1) 활용영역

활용영역은 두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첫째, ‘디지털생활’영역으로서, ‘생산활동’, ‘거래활동’, 및 ‘교류활동’ 등 3가지 하위지표로 구성된다. 각 하위지표와 항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디지털 생활영역의 하위지표와 항목
(Table 1) Sub-indexes and Items of Digital Life Area

하위지표	항목
생산활동	글 올리기/댓글 달기
	본인 사진/동영상 올리기
	타인 글/사진/동영상 공유 및 전달
거래활동	금융거래
	쇼핑
	민원서류 신청/발급
교류활동	이메일 이용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 이용
	SNS 이용
	실시간 메시지 서비스 이용

둘째, ‘온라인 사회참여’영역으로서, ‘정책이나 정치, 사회적 이슈 관련 온라인 참여’, ‘온라인 기부활동 참여’, 및 ‘불건전 콘텐츠나 인터넷활동 신고’ 등 3가지 하위지표로 구성된다. 각 하위지표와 항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온라인 사회참여영역의 하위지표와 항목
(Table 2) Sub-indexes and Items of Online Society Participation Area

하위지표	항목
정책이나 정치, 사회적 이슈 관련 온라인 참여	정보검색
	투표/여론조사 참여
	글/사진/동영상 올리기
	온라인 카페/커뮤니티 가입
	인사/단체와 온라인 친구맺기
온라인시위/서명참여	
온라인 기부활동 참여	기부활동 참여
불건전 콘텐츠나 인터넷활동 신고	불건전 콘텐츠나 인터넷활동 신고

2) 인식영역

인식영역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첫째, ‘온라인 신뢰’영역으로서 ‘정보콘텐츠 신뢰도’ 및 ‘사이트 신뢰도’ 등 2가지 하위지표로 구성된다. 각 하위지표와 항목은 다음 표 3와 같다.

(표 3) 온라인 신뢰영역의 하위지표와 항목
(Table 3) Sub-indexes and Items of Online Trust Area

하위지표	항목
정보콘텐츠 신뢰도	쇼핑몰, 기업의 물품/서비스 정보
	공공서비스 정보
	언론기사/뉴스정보
	SNS에 올려진 정보
	이용자들이 올리는 인터넷 정보제반
사이트 신뢰도	쇼핑몰/기업 사이트
	정부/공공기관 사이트
	언론사 사이트
	SNS 사이트
	포털 사이트

둘째, ‘온라인 타인존중’영역으로서 ‘다른 의견표현의 자율성 인정’, ‘다른 의견에 대한 경청’, ‘다른 의견에 대한 수용’, 및 ‘온라인 서명운동이나 온라인 집단청원의 자율성 인정’ 등 4가지 하위지표로 구성된다. 또한 각 하

위지표의 항목은 하위지표와 동일하다.

3) 규범영역

규범영역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첫째, ‘인터넷 윤리의식’영역으로서, ‘개인정보의 무단 이용’, ‘인신공격성 타인비방’, ‘콘텐츠 무단 이용(다운로드 포함)’, ‘미검증 정보 유포’, ‘불건전 유해정보(음란성, 자살권유 등) 유포’, 및 ‘집단 따돌림(왕따)’ 등 6가지 하위지표로 구성된다. 또한 각 하위지표의 항목은 하위지표와 동일하다.

한편, ‘인터넷 윤리행태’영역은 ‘주변인의 정보화역기능 통제 의사’ 및 ‘인터넷 일탈경험’ 등 2가지 하위지표로 구성된다. 각 하위지표와 항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인터넷 윤리행태영역의 하위지표와 항목
(Table 4) Sub-indexes and Items of Internet Ethics Behavior Area

하위지표	항목
주변인의 정보화역기능 통제 의사(가족, 친구 및 주변지인)	개인정보 무단 이용
	타인에 대한 인신공격/비방
	콘텐츠 무단 이용
	미검증 정보전달/유포
	불건전 유해정보전달/유포
집단 따돌림 가담	
(본인의) 인터넷 일탈경험	개인정보 무단 이용
	타인에 대한 인신공격/비방
	콘텐츠 무단 이용
	미검증 정보전달/유포
	불건전 유해정보전달/유포
집단 따돌림 가담	

2.2 선행연구

[6]의 연구에서는 정보문화지수가 국민의 정보 활용 수준을 지식, 도덕, 감성, 실천의 4가지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계량화한 수치로서 네티즌의 정보문화수준을 나타낸다고 가정하고, 청소년들의 정보문화지수를 분석하였다.

[7]의 연구에서는 정보문화지수를 활용하여 중등학생들의 정보문화 수준을 고찰하고, 정보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각 지수를 활용하여 연구주제와 목적에 부합하는 문항들로 지수를 구성하고, 요인 분석을 통하여 4 개의 요인을 결정된 후 신뢰도분석을

통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회귀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정보문화 생활과 또한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였다.

한편 [8]의 연구에서는 정보문화지수 측정모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정보문화지수 측정모형은 크게 3가지 부문과 그 하위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문은 ‘도구적 정보문화’로서 ‘컴퓨터, 정보통신 하드웨어 및 기간설비’ 및 ‘컴퓨터,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등 2가지 하위부문으로 구성된다.

둘째 부문은 ‘제도적 정보문화’로서, ‘정보화관련법, 제도적 환경’, ‘컴퓨터 및 정보통신교육’, 및 ‘정보화지원 연구개발’ 등 3가지 하위부문으로 구성된다.

셋째 부문은 ‘가치적 정보문화’로서, ‘정보윤리 및 규범의식’, 및 ‘정보문화의 생활화’ 등 2가지 하위부문으로 구성된다.

또한 [9]의 연구에서는 정보문화지수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문화지수를 크게 4가지 상위지표와 더불어 각 상위지표에 해당하는 하위지표들을 개발하였다. 각각의 상위지표와 해당 하위지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역량’ 지표로서, ‘인터넷 활용능력’, ‘정보소통 능력’, 및 ‘정보조절 능력’ 등 3가지 하위지표로 구성된다.

둘째, ‘정보규범’ 지표로서, ‘정보예절’, ‘온라인준수’, 및 ‘온라인실패’ 등 3가지 하위지표로 구성된다.

셋째, ‘정보취향’ 지표로서, ‘정보중요도’, 및 ‘정보선호도’ 등 2가지 하위지표로 구성된다.

넷째, ‘정보실행’ 지표로서, ‘정보향유’, 및 ‘정보실천’ 등 2가지 하위지표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정보문화지수에 관한 선행연구 중에서 [2,5]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목표는 학력과 정보문화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즉 학력에 따른 활용영역, 인식영역 및 규범영역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함이며, 학력이 높을수록 3가지 영역과의 상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학력과 정보문화지수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가 없었다.

3. 학력과 정보문화지수 상관분석

3.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상관관계 분석연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2년

과 2013년 정보문화실태조사[2,5]에 기초한다. 정보문화 실태조사에 관한 전반적인 개괄은 다음과 같다.

3.1.1. 조사배경 및 목적

조사배경과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이용이 생활전반에 걸쳐 확산됨에 따라 건전하고 성숙한 정보문화 확립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정보문화의 실상과악을 위한 체계적이고 정량적인 정보는 부족한 현실이다.

둘째,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비롯한 IT 기기와 서비스의 확산에 따른 정보화 관련 역기능현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정보문화실태조사의 목적은 국민의 정보 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궁극적으로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정책 수립에 있다.

3.1.2. 조사내용 및 범위

정보문화 실태조사는 정보문화 수준을 진단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정보문화실태조사 항목은 활용(Use), 인식(Cognition), 규범(Norm)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영역별 각각 2개 하위지표와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3.1.3. 조사설계

조사개요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조사방법 개요
(Table 5) Summary of Survey Methods

조사대상	민 6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조사지역	전국 17개 시도
표본수	4,650명
조사방법	가구 방문을 통한 개별 면접조사
표본추출	다단계층화전략추출법

3.2 연구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력과 정보문화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2012년과 2013년 2년 동안의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2,5]를 바탕으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서 집단간의 차이 검증인 교차분석(Crossov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음 표 6은 년도별 정보문화지수 활용영역 현황을 보여준다. 숫자는 100점 만점 기준의 점수를 나타낸다.

(표 6) 학력별 활용영역 현황
(Table 6) The Current Status of Application Area Depending on Academic Background

	2012년	2013년	전체	$\chi^2(p)$
중졸 이하	30.3	34.0	32.2	6.876* (.031)
고졸	45.1	41.1	43.1	
대졸	55.8	47.9	51.9	
대학원졸	56.7	54.9	55.8	
전체	47.0	44.5	44.6	

*p<.05

위의 표 6에서와 같이 활용영역에 대해 살펴보면 2012년의 경우에는 중졸 이하가 30.3, 고졸이 45.1, 대졸이 55.8, 대학원졸이 56.7로 학력이 높을수록 활용이 높게 나타났다고 2013년도 중졸 이하가 34.0, 고졸이 41.1, 대졸이 47.9, 대학원졸이 54.9로 학력이 높을수록 활용이 높게 나타났다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 = 6.876, p < .05$).

한편 년도별로 중졸이하는 점수가 높아지지만 고졸이상은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은 활용영역의 2가지 하위 지표 즉 디지털 생활 영역과 온라인 사회참여 영역 모두에서 중졸이하는 년도별로 점수가 높아진 반면 고졸이상은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5].

한편 다음 표 7은 학력별 인식영역 현황을 보여준다.

(표 7) 학력별 인식영역 현황
(Table 7) The Current Status of Awareness Area Depending on Academic Background

	2012년	2013년	전체	$\chi^2(p)$
중졸 이하	72.0	72.2	72.1	14.241** (.003)
고졸	71.5	72.9	72.2	
대졸	71.7	73.6	72.7	
대학원졸	71.5	74.8	73.2	
전체	71.7	73.4	72.6	

**p<.01

위의 표 7에서와 같이 인식영역에 대해 살펴보면 2012년의 경우에는 중졸 이하가 72.0, 고졸이 71.5, 대졸이 71.7, 대학원졸이 71.5로 고졸 이상보다 중졸 이하가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고 2013년은 중졸 이하가 72.2, 고졸이 72.9, 대졸이 73.6, 대학원졸이 74.8로 학력이 높을수록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인식영역에서는 2개의 하위영역에서 년도별로 모두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전체적인 인식점수가 높아졌다. 하지만 각 하위영역에서 증가세가 크지 않아 증가폭도 크지 않았다[5].

다음 표 8은 학력별 규범영역 현황을 보여준다.

(표 8) 학력별 규범영역 현황
(Table 8) The Current Status of Norm Area Depending on Academic Background

	2012년	2013년	전체	$\chi^2(p)$
중졸 이하	90.7	91.5	91.1	3.523 (.572)
고졸	89.8	91.4	90.6	
대졸	89.2	90.5	89.9	
대학원졸	89.8	91.9	90.9	
전체	89.9	91.3	90.6	

위의 표 8에서와 같이 규범에 대해 살펴보면 2012년의 경우에는 중졸 이하가 90.7%, 고졸이 89.8%, 대졸이 89.2%, 대학원졸이 89.8%로 고졸 이상보다 중졸 이하가 규범이 더 높게 나타났고 2013년은 중졸 이하가 91.5%, 고졸이 91.4%, 대졸이 90.5%, 대학원졸이 91.9%로 대학원졸이 규범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규범영역에서는 학력별로 전체적인 규범점수가 매우 비슷하며, 규범영역에서의 두 가지 하위지표에서 규범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인 년도별 규범점수도 증가함을 나타내었다[5].

4.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력과 정보문화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 2012년과 2013년 2년 동안 실시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문화지수 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상관관계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학력과 정보문화지수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서 교차분

석방법을 실시한 결과 정보문화지수의 3개 영역 중에서 활용영역만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활용능력이 증가함을 보였다. 하지만 정보문화지수의 나머지 2개 영역 즉 인식영역과 규범영역은 학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즉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정보 소양, 정보 활용 및 정보 윤리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실천의지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는 활용영역에 대한 상관관계가 있고, 나머지 두 영역에 대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학력에 비례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정보관련 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는 높아지지만, 공동체에서의 타인에 대한 신뢰와 존중, 또한 정보윤리의식이 높아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크게 2가지 가능성을 의미한다. 첫 번째 가능성은 지금까지 전반적인 정보윤리교육이 모든 국민들에게 미약했다고 볼 수 있으며, 두 번째 가능성은 정보윤리교육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의식의 변화와 행동은 아는 것과 별개임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비교기간을 확대하여 조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2년 동안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조사하였다. 보다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보문화지수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 2008년부터 조사결과자료를 분석하여 상관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문화지수를 재정의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정보문화지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현실세계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현재 정보문화지수의 규범영역은 인식영역과 중복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정보소양(또는 지식)영역에 대한 상관관계분석도 필요한 형편이다.

참 고 문 헌 (References)

- [1]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Operation Guidelin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ducation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2000.
- [2]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2 Information Culture Status Survey", NIA Report IV-RER-12096, 2013.
- [3] Y. Han, "A Study on the Methods of Teaching Korean Information Culture for KFL-Focusing on EBS 'Knowledge Channel e'-",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15.
- [4] J. Lee, "Study on Korean Information Culture Education Methods with Films Applied-Focusing on Advanced Chinese-speaking Learners",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16.
- [5]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3 Information Culture Status Survey", 2014.
- [6] Y. Ko, H. Kim, C. Park, J. Hyun, and C. Kim, "Information Culture Index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ternet Cell-Phone Addiction",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Vol. 14, No. 3, pp. 13-23, 2011.
- [7] Y. Ko and C. Park, "Analysis of Information Culture Index Influencing the Digital Divide among Secondary School Students", Proceedings of Korea Computer Education Society Conference, 2010.
- [8] Y. Son and M. Lee, "The Needs for Information Culture Index and its Exploratory Method of Measurement", Journal of Informatization Policy, Vol. 9, No. 3, pp. 61-78, 2002.
- [9] Korea Agency for Digital Opportunity and Promotion, "A Study on Repletion Development of Information Culture Index", Seoul, Korea, 2009.

● 저 자 소 개 ●



배 예 선 (Ye-sun Bae)

1997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졸업
2006년 서울교육대학교 초등컴퓨터교육과 졸업
2006-2010 서울역삼초등학교 교사
2011~현재 서울북성초등학교 교사
현재 서울교육대학교 초등컴퓨터교육 전공 석사과정
관심분야 : 초등 프로그래밍 교육
E-mail : yesun75@hanmail.net



전 우 천 (Woo-chun Jun)

1985년 서강대학교 전산학과 졸업(학사)
1987년 서강대학교 대학원 전산학과 졸업(석사)
1997년 미국 University of Oklahoma 대학원 전산학과 졸업(박사)
1998~현재 서울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 장애인정보화교육, 정보영재, 정보통신윤리
E-mail : wocjun@snu.ac.kr